

인 사 말

완연했던 가을도 세월 한켠에 간직해 두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년 초 발심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을 되돌아 보며, 소중한 성과들은 성과대로 간직하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들은 더욱 정진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종단 신도대중들의 근간인 본사별 교구신도 임원의 자격으로 이 곳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을 제33대 총무원의 사명으로
천명하였습니다.**

**2010년 현재 종단과 한국불교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포교입니다.
포교는 부처님 법을 바로 알려 이웃을
행복과 안락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를 맑고 아름답게 하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이에 불자의 사명은 곧
포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단은 출범 당시부터 포교를 이야기 하면서도 종단을 중흥을 위한 물적토대 구축과 종단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승가역량 배가라는 당면과제로 정작 우리나라 사회에서 포교가 실현되는 체계를 구축하거나 신도를 육성하는 데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이제 우리 종단은 그간 쌓아 올린 종단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포교를 실현하는 것에 매진해야만 할 때이고, 절체절명의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저는 종단 대표자로서 임기동안 이러한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2010년 포교원은 ‘신도교육과 조직화’의 핵심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종단 사명인 포교를 해나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할 과제입니다. 포교의 제일선에 스님들이 서게 할 것입니다.

또 포교현장에 나선 스님들이 중심적 지도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길에 포교 원력을 원만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포교일선의 스님들을 외호하며, 종단 포교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단 신도조직이 튼실히 꾸려져야 합니다.

종단 신도대중의 기초조직이 사찰 신도회입니다. 그리고 사찰신도회가 종단 신도조직으로 발현되는 것이 교구신도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구신도회를 종단 신도대중 조직의 근간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렇기에 2010년 현재 종단의 여건과 교구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본사 주지스님들의 지도하에 교구신도회를 잘 조직하고 활성화하는데 교구신도 임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노력하기를 당부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전체 교구에서 진행되어야 종단 신도대표 기구인 중앙신도회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각급 계층별·직능별 신도단체들도 보다 활력 있는 신행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관점의 문제를 당부합니다.
종단 신도대중의 조직화는 종단의
지침을 대전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혹여 종단지침을 습득하기 어렵거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그 지침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해
나갈 때 종단 구성조직으로 태어날 수
있고, 보다 발전적인 개선에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도교육과 조직화뿐만 아니라
종단이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모든 과제에도 적용되는 관점입니다.

지난 시기 종단은 물론 불교계의 발전에는 원력있는 스님들의 각고의 노력, 제반 불교단체들의 헌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성과 위에 다시금 준비하는 불교종흥은 개별적 원력을 넘어 종단화, 즉 종단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조직화하여 활동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다른 표현으로 종단운영에 있어서 공심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이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
결집된 여러 신도임원님들이 이러한
화두와 종단적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며,
그 첫 걸음을 내딛어 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불기 2554년 11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